



가금위생해외뉴스

오경록기자



■ 오 경 록

- 남덕에스피에프 대표
- 이학박사

1. 사료에 항생물질 사용 문제

유럽 위원회는 3월 25일 유럽 연합 사료 첨가물 규칙을 대폭으로 간략화하고 새롭게 수정하여 가축용 사료에 항생물질의 사용을 2006년을 기하여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사람의 의약품에도 사용되는 항생물질은 모두 4년전에 사료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현재 사용이 인정되고 있는 항생물질은 4종류밖에 없다.

유럽 위원회가 머지않아 4종류의 사용도 단계적으로 금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럽 위원회의 고문인 과학자들은 가축용 사료에 항균성 물질의 사용을 계속하면 세균의 내성이 강해져 사람의 치료 효과가 떨어질 위험이 크다고 하였다.

유럽 위원회의 식품 안전 담당위원은 「지금까지 적용되는 법 제도는 규칙이 복잡하게 되어있다.

이번에 새로운 법안이 채택되면 사료업계는

확실한 지침을 받게 된다」라고 하였다.

이 유럽 위원회의 법안에 관해서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체 단체인 FEDESA에서는 복잡한 수속이 줄어들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항생물질의 전반적인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업계가 대체물질을 확보할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하였다.

사료 첨가물로 항생제를 사용하면 가축의 성장률은 30% 정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생물질은 양돈부문과 양계부문에서 많이 사용되어졌다.

FEDESA에서는 「유럽 위원회는 금지되는 항생물질의 대체품을 2006년까지는 확보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하지만, 이는 낙관적인 의견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이번에 제안되고 있는 시스템은 인가 수속에는 현행과 거의 변화한 것이 없다.

이 새로운 시스템에서도 유럽 연합의 과학 위원회(유럽 식품 안전청이 설립된 후에는 안전청에 소속)가 새로운 사료 첨가물을 인가 하고 10년간 유효한 판매 허가서를 교부하게 되

었다. 또한 이 첨가물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는 7년 이내에 그 제품의 재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번의 제안에서는 항 콕시들펀제에 한하여 이 재평가를 받는 기간이 4년 이내로 줄였다.

항 콕시들펀제는 가금의 심한 장내 원충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항생물질 유래의 첨가물이다.

이 법안은 보건위생에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의 수속을 밟고 유럽 의회의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법안의 성립은 18개월 정도가 걸리겠지만, 성립되기까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수도 있을 것이다.

(NK. 2002.7)

2. 야생 조류의 가금 인플루엔자 보유 현황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수성이 있으며, 미국에서의 조사에서는 조류의 50개과중 12개과의 80종류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여 보고 하였다.

대부분 모든 조류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수성을 보인다고 보고 하고 있다.

그 조사에서는 총 21,318검사 재료중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분리된 것이 2,317예(10.9%) 이었다. 제일 많은 것은 물새 종류로서 14,303 검사재료중 2,173예(15.2%)에서 분리되었고, 다음이 참새류(2.9%), 물떼새류(2.2%)이었다.

또한 캐나다의 호수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야생오리의 60%이상에서 바이러스가 분리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A형 인플루엔자의 15종 전체의 HA아형, 그리고 9종 전체 NA아

형이 야생 오리에서 분리되어 야생오리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본래의 숙주라고 생각하고 하였다.

일본에서는 돗토리 대학이 매년 야마게 지방에 날아오는 철새로부터 바이러스를 분리하여 H5, H7 등 가금 인플루엔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HA 아형을 포함한 가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분리하였다. 그들중 닭에게 강한 병원성을 나타내는 바이러스는 없었으나, 일본에서도 철새가 매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운반하여 온다는 것이 확실하게 되었다. 일본에 수입되고 있는 애완조류는 동남아시아를 위시한 열대 지방에 야생조류인 것을 포획하는 경우가 많다.

동물 검역소의 조사에 의하면 1997년 홍콩, 중국, 대만 등의 총 16개국으로부터 일본에 수입되고 있는 애완조류중 53개군에 대하여 바이러스 분리 조사를 하였는데, 4개군(7.5%)에서 5주의 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분리되었다.

이는 홍콩의 3개군, 중국의 1개군에서 참새 종류, 멧새, 거위 이었다. 분리된 바이러스는 모두 H4 N6로서 저병원성 이었다. 또한 파키스탄에서 수입된 잉꼬새에서 H9N2 아형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2주를 분리하였다. 이상과 같이 일본에 날아오는 야생조류, 수입한 애완조류에서 높은 비율의 가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다. 일본에서 살고 있는 텃새인 야생조류에 어느 정도의 바이러스가 보유하고 있는지 조사는 안되었으나, 철새등을 통하여 감염되고 있으리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JSPD.2002. 3)